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모집

전북자치도, 이달 말까지 모집... 특구 지정 시, 참여기업 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

전북특별자치도는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북이 9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공모에서 기능성식품 분야의 후보 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특구 사업자를 발굴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구에서는 세 가지 주요 사업이 실증될 예정이다. 첫째,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일반 식품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29종으로 한정된 기능성 원료의 범위를 확

대해, 기업들이 차별화된 기능성 표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중소기업들이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를 충족하는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사업이 진행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사업화 실증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특구 사업자를 모집하고, 각 실증 사업별로 특례 부여 및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거쳐 2025년 4월 최종 특구로 지정되면, 2026년부터 4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한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수 있는 기업·기관이어야 한다. 대상은 일반 식

품, 기능성 표시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업, 연구개발 기업 및 기관이며,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를 통해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북테크노파크(063-210-2204)로 연락하면 된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기능성식품 산업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기능성식품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경위, 도민 정책자문단 모집

만16세 이상 도민·도내 대학생 신청 가능... 내달 1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민이 원하는 치안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제2기 자치경찰도민 정책자문단' (이하 정책자문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책자문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가 있는 만 16세 이상 도민 및 도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내 치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모집 기간은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지원신청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해 공고문의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정책자문단은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범죄 예방 사업

등 치안정책을 개인 SNS를 통해 홍보하여 도민에게 혜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자문단의 활동 기간은 2년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다.

위원회는 정책자문단 모집 시 신청자의 거주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10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연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이후 도민의 참여가 치안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책자문단은 지역 치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소통 창구로, 이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가 치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제일전북도민회 60주년 기념식 개최... 일본서 중추적 역할 '기대'

김종훈 경제부지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여 독려·농수산 판촉행사 등 진행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창립 60주년을 맞은 제일전북도민회 기념식 참석 및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한인비즈니스 대회 참가 독려를 위해 일본 출장길에 나섰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쿄 프린스호텔에서 제일전북도민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 이 자리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 리종일 전 주일대사,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일전북도민회 및 도쿄 내 주요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일전북도민회는 1964년 도쿄를 중심으로 창립돼 현재 약 30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과 전북의 협력과 교류 지원 및 일본 내 전북 알리기에 수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1975년 전군가도 100리 벚꽃길 식재를 제일전북도민회에서 추진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애



지난 12일 도쿄 프린스호텔에서 제일전북도민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가다. 도민회는 2008년부터 도내 14개 시군을 매년 찾아, 꽃길 만들기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전현사 제일전북도민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 고향 전북을 위해 힘

써온 시간이 60주년이 되었다. 어릴 적 부모님 손잡고 도민회를 나오던 학생도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며, "이제는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도민회를 이끌어가기를 희망한

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익산역 폭파사고, 애항 장학숙, 독립운동 추념탑 건립 등 전북을 위한 일이 있을 때 마다 고향을 잊지 않으시고 성금을 보내주셨다"며 "자랑스러운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을 키워잡시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대표단은 11일 도쿄 한인상공회의소 관계자와 간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 일원에서 개최되는 한인비즈니스 대회 참여를 독려했다.

12일 오후에는 도쿄 탐 마트에서 전북자치도 농수산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12일부터 18일까지 약 1주일 동안 도쿄 탐마트와 치바현 SS마트에서 진행되는 이번 판촉 행사에는 조미김, 레토르트 국수 등 36개 품목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도내 약수터 9곳 대상, 수질검사 실시

부적합 시설 즉시 사용 중지·시설 개선 후 재검사 예정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도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약수터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먹는물공동시설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포함하며, 전북 내에는 전주 2개소, 군산 3개소, 익산 2개소, 원주 1개소, 순창 1개소 등 총 9개소가 관리되고 있다.

수질 검사는 미생물 4항목(일반세균

등), 유해 무기물질 12항목(우라늄 등), 유해 유기물질 17항목(페놀 등), 심미적 영향 물질 14항목(경도 포함) 등 총 47개 항목에 걸쳐 진행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즉시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사용을 중지시키고, 오염원 제거 및 청소, 소독 등 시설 개선 후 재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 시에만 재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도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약수터의 철저한 수질 및 위생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더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가을 행락철 맞아 주요 관광시설 안전점검 강화

출렁다리·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시설 18개소 대상 민관 합동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도내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 나들이객들이 물리는 출렁다리, 케이블카, 썰라인, 스카이워크 등 주요 시설에서의 안전사

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자치도는 각 시·군 담당 공무원과 도목, 전기, 기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도내 주요 관광시설 1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성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특히, 많은 인원이 동시

에 이용하는 출렁다리와 케이블카 등에서의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이뤄질 예정이다.

출렁다리의 경우,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변형 및 부식 여부 △기동과 케이블 접합부의 손상 여부 △주탑, 케이블, 앵커리지 행어의 부식 상태 △난간과 바닥판의 흔들림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안전 취약 요소를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가을 행락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전북을 찾기 때문에, 빈틈없는 안전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68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7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방문, 2024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서은식·

한경봉·우종삼·윤신애·김영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한경봉·송미숙 의원의 건의안, 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